

창원시, 창동예술촌에서 즐거운 새해 보내세요!

민속놀이터 연만들기 등 다양한 무료 체험 '새해맞이 설 문화놀이터' 개최

안기환 기자

최종 기사입력 2018-02-13 11:13

창원시는 창원시도시재생지원센터, (사)창동예술촌과 함께 설 연휴기간인 오는 17, 18일 오후 1시부터 오후5시까지 이틀동안 창동예술촌 일대에서 시민과 귀향객을 대상으로 한 『설맞이 민속놀이터』를 개최한다고 13일 밝혔다.

이번 행사는 전통과 현대가 공존하는 한마당 축제를 만들기 위해 전통민속놀이 행사와 무료 체험 행사 등 다양하게 준비중이다.



창원시, 창동예술촌에서 즐거운 새해 보내세요!

전통 민속놀이는 ▲널뛰기 ▲투호던지기 ▲웃놀이 ▲전통팽이 & 현대팽이 대결 등과 무료 체험 행사 ▲나만의 소원 연 만들기 ▲복주머니 만들기 등을 경험 할 수 있다.

이 기간 동안 설맞이 문화놀이 행사 이외에도 작은 갤러리에서 열리는 예술 전시도 함께 관람 가능하다. ▲창동예술촌 아트센터 2층 전시장 ▲소담갤러리 ▲리아갤러리 등 골목길에서 만나는 작은 전시장에서 특색있는 작품도 만날 수 있다.

창원시는 지난 해 추석 연휴에도 1,000여명의 체험 재료가 완전히 소진된 점을 감안해 이번 행사는 넉넉한 체험 수량을 확보해 두고 있다.

추석 연휴 기간 중에 창동예술촌을 방문하면 각종 민속놀이와 함께 작품도 감상할 수 있는 볼거리?체험거리가 다양하게 제공되니, 연휴 기간 중 가족나들이로 계획하면 좋은 추억거리가 될 것이다.

김해성 창원시 도시재생과장은 "이번 행사가 세대간의 소통과 공감의 기회가 되고, 가족 친척, 친구들과 함께 좋은 추억을 만들기는 물론 다양한 예술작품도 감상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자 한다."고 말했다.

이번 행사는 창동을 방문하는 누구나 무료로 체험 가능하며, 자세한 문의는 창동예술촌 아트센터(☎055-222-2155)로 하면 된다.

창원=안기한 기자 agh0078@

프린트

취소